

익산시 신청사 투자계획 추진

주택도시기금 활용 예정 재원계획 수정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재심의 요청

익산시가 신청사 건립에 투입되는 최적의 투자계획을 담자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를 재의뢰하기로 했다.

LH로부터 선투자를 받아 청사건립에 활용하는 것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주택도시기금의 이율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9일 익산시는 당초 시비와 LH 선투입금을 활용해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에서 LH 투입금보다 이율이 유리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담자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를 다시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023년까지 연면적 약

4만㎡, 지상 10층/지하 2층 규모로 신청사를 지을 계획으로 총사업비 948억 원 중 자체 재원이 491억 원, 지방채무 400억 원, LH 선투자금 57억 원으로 계획했다.

이중 LH 선투입금의 이율은 연 2.92%, 5년 분할상환인데 비해 주택도시기금의 이율은 연 1.8%, 13년 분할상환으로 상환조건 등에서 주택도시기금이 훨씬 유리하다.

시는 LH로부터 선투입금을 받지 않고 저리의 기금을 활용해 신청사 건립에 투입하고 옛 익산경찰서 부지의 개발이익금을 회수해 기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이율이 더욱 저렴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신청사 건립비용을 시비와 주택도시기금으로 투입하고, LH의 선투입금 등에 대해서는 LH와 공유지 개발에 대한 위탁계약 시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공유지 개발 수익금을 활용 주택도시기금을 상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 신청사는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다"며 "사업방식은 계획대로 추진하며 재원 계획을 일부 변경해 최적의 투자계획으로 신청사 건립을 정상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신청사 건립은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에 선정된 이후 국토부와 LH, 익산시 간 업무협약 체결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진행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가 지역 출신 대표 가수 마크툽과 클라보해 제작한 곡과 영상을 시민들에게 선보여 화제다

마크툽, '익산으로' 음원 발매

익산시, 지역형상화한 가사의 곡 · 영상을 콜라보 · 공식 SNS 게시

익산시가 지역 출신 대표 가수 마크툽과 클라보해 제작한 곡과 영상을 시민들에게 선보여 화제다.

시는 오는 10일 오후 12시부터 가수 마크툽이 직접 작사·작곡하며 노래한 '익산으로' 음원이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고 밝혔다.

익산 출신이자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마크툽(MAKTUB)이 지역을 아름답게 형상화한 곡과 영상을 제작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익산으로'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익산을 형상화한 가사, 그리고 마크툽 특유의 세련된 음색이 돋보이는 곡으로써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따뜻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많은 시민들이 해당 음원을 즐길 수 있도록 향후 앨범 발매와 동시

에 익산시 공식 SNS 등에 음원·영상을 게시하고 지역 방송사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도 송출하고 통화연결음 서비스 설정, 노래방 노래반주기에 신곡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 출신이자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마크툽이 참여한 만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보다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으로' 영상에 출연한 배우 조유진 씨는 CF와 영화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음원 제작을 통해 익산과 연을 맺게 됐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 0.8% 최대 50만원

군산시는 코로나19 등 가중되는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게 지난 2020년도 카드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로 부담하

고 있는 카드매출액의 0.8%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유형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외 중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도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 등의 업종은 신청이 가능하며, 1인 다수 업체 보유 시에는 2개 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10일부터 오는 12월 17일(예산소진시)까지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팩스(063-454-2689), 이메일(mydon82@korea.kr) 또는 우편(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7층 소상공인지원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

연년과 달리 제출서류가 간소화되어 전년도 연매출액과 카드매출액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신분증, 사업등록증 및 통장사본만 구비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일준 군산시장은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라며 경기악화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454-2680)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고병만 기자

익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시는 카드 매출액을 포함한 지난해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8% 중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오는 10일부터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방문 접수를 할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과 사업자등

록증 사본, 신분증 등을 준비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공고일 전 폐업자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인 유흥·사행성 업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카드수수료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카드 매출액 자료는 서류 간소화를 위해 국제청과의 협의를 통해 제공받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사전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끊임없는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총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7천5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를 지급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익산시민콜센터(☎ 1577-0072)로 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익산, 파크골프장 남녀노소 즐길 '명품구장'

익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종목 가운데 파크골프가 회원들의 뜨거운 열기와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인기종목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

파크골프(Park golf)는 공원(Park)과 골프(Golf)의 합성어로 일반 골프의 1/50 정도의 면적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적응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익산시 파크골프협회(회장 권의진)는 2016년 9월의 열악한 시설과 적은 인원으로 시작하였으나 입소문을 타고 주목받기 시작해 현재 18홀의 구장에서 13개 클럽 5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만경강에 위치한 파크골프 구장은 익산시 파크골프의 초석을 다져놓은



류평초 초대회장에 이어 2021년 새롭게 취임한 제2대 권의진 회장의 뛰어난 추진력으로 운동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꽃 종을 식재하는 등 주변 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의회, 상반기 업무보고 · 부의안건 처리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9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제238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9일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2021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원발의 8건, 조례안 11건 등 2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 해상인도교(장자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군산 혁신성장펀드 조성사업, 고군산군도의 종합적 관리 및 개발사업 추진방안 등 10건의 현안사업에 대한 간담회는 물론 9건의 현장방문을 통해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1조 4139억 7000만원보다 1071억 8000만원(7.0%)이 증액된 1조 5211억 5000만원으로 21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의회, 시정질문 통해 주요 현안 집중점검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6월 9~10일 2일에 걸쳐 진행되며, 시정질문 첫날 의원들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 사항에 대해 예리한 질문들을 이어갔다.

김윤근 의원은 익산역 선상주차장 및 공용주차장 건립 등 부족한 주차장 대책 마련을 촉구 하고,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 반려식물 지원사업 활성화로 녹색도시 만들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동 의원은 익산시 시내권 주차장 확보를 위한 개방주차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익산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김충영 의원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위험요소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집행부의 대안을 촉구했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익산배상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김재훈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